

수익성 증명한 SpaceX, 다음은 Meta

[Market Analyst] 강진혁 선임연구원 ☎ (02) 3772-2329 ✉ kjinhyeok@shinhan.com



SPCX-SMCI 실적 안도에 KOSPI 매수 사이드카

KOSPI, KOSDAQ은 각각 3.3%, 1.4% 상승했습니다. 간밤 美 AI주 혼조세(MU -1.0%, CRWV +1.7%)에도 실적 이슈에 시외 반등했습니다. SpaceX(시간외 +8.1%)가 호실적(매출 +161% YoY)과 더불어 AI 부문의 매출(+830%) 급증+흑자 전환 알리며 수익성 우려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CapEx 추가 확장이나 SMCI(시간외 +15.6%) 잠정 매출 서프라이즈(185~195억\$, 가이던스 대비 30%↑) 등에 AI 밸류체인 반색했습니다. 국내는 1~20일 전제(+105.4% YoY)·반도체(+222.5%) 수출 호조 더해져 반도체(삼성전자 +5.7%, 하이닉스 +5.8%) 중심 반등했고, KOSPI 매수 사이드카 발동되며 5,700p 회복했습니다.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은 오늘 종료됐지만 다음 주 실적 발표 전후 추가 주주환원 공개가 전망됩니다.

AI 인프라 투심 회복+바이오 강세

양 시장 AI 인프라주와 바이오 부각됐습니다. LS ELECTRIC(+7.0%)의 분기 최대 실적(영업이익 +131.7% YoY)에 전력기기(효성중 +3.0%)가 강했고, 상장 첫날 32% 급락하며 주목을 받은 엘리스도 오늘은 상한가 안착 성공했습니다. AI 대표 낙관론자인 Jensen Huang GTC 기조연설이 추가 모멘텀이 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헬스케어는 삼성에피스(+1.8%) 항암 신약 후보물질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등 호재가 있었습니다.
#특징업종: 1)정유: 靑, 정유사 국내 의무 공급량 완화 가능성 시사(S-Oil +2.7%) 2)방산: 입찰 자격 2년 제한 처분 LIG D&A(-9.0%)의 신규 수주 불확실성 속 엇갈림(현대로템 +2.0%) 3)모듈러 주택: 정부, 주택 공급 가속화 위해 모듈러 주택 등 정책 검토(엔알비 +8.3%)

SpaceX 화재 이후 릴레이 빅테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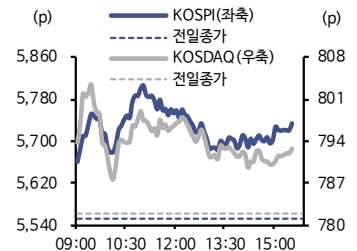
AI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진 것은 반대로 이를 해소할 증거의 가치도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SpaceX 실적은 긍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CapEx(3Q 196억\$, +185% YoY, 4Q 가이던스 350~400억\$)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정당화할 SI(초지능) 매출(+830% YoY, 우주·통신 능력)로 흑전 성공하며 증명에 성공했습니다. 신규 컴퓨팅 투자 회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시했고, 내년 상반기 자체 현금을 통한 CapEx 전망도 우려 덜게 했습니다. 내일 새벽 실적 발표하는 Meta는 지난 분기 CapEx 상향에도 FCF 급감(-91% YoY)했던 만큼 수익성 검증은 지속됩니다.
#주요일정: 1)Jensen Huang GTC 연설(18:00) 2)美 META·TSLA·LRCX 등 실적 3)韓 10월 금통위(22일 10:00) 4)韓 삼성E&A 등 실적(22일)

주식시장 지표

구분	KOSPI	KOSDAQ
종가	5,735.66 (3.29%)	792.76 (1.38%)
상승 종목	372(↑1)	832(↑3)
하락 종목	490(↓0)	802(↓0)
주체별(억원)	KOSPI	KOSDAQ
개인	-11,319	516
외국인	6,649	-1,717
기관	-715	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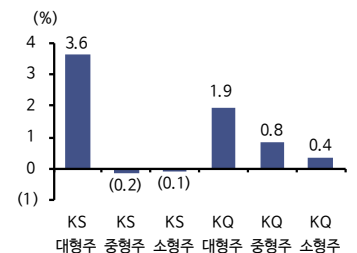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KOSPI, KOSDAQ 장중 흐름



자료: Infomax, 신한투자증권

반도체 등 대형 AI주 중심 반등



자료: 에프앤가이드,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강진혁).
-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